

# 의대 수시모집 10명 중 4명 학종 선발 ‘대폭 증가’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전형별 모집요강 전략 필요  
총 선발인원 전년비 394명 늘어  
수능최저·학생부 비율 확인해야



/유도이미지

올해 의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10명 중 4명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학종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이 대학·전형별 상이하므로 모집요강을 파악해 비교우위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올해 전국 37개 의대의 수시모집 선발인원(정원내)은 1807명으로 전년도 36개 의대 1592명 대비 215명(13.5%p) 증가했다. 정시모집 인원을 합치면 총 선발인원은 2927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94명(15.6%p) 늘었다. 수시모집 전형 유형별로, 학종 선발인원은 794명으로 수시모집정원의 43.9%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은 715명, 논술전형 253명, 특기자전형 45명 순이다. 학종 선발인원이 전년대비 137명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을 노리는 수험생들은 이들 주요 전형 요소별로 자신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형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으로 최소 2개 영역 1등급 이내가 반영된다. 또 일반고를 기준으로 수시모집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이 평균 1.3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시 논술 전형의 경우는 최근 논술고사가 평이하게 출제되는 것을 고려해도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올해 면접에서 의사로서의 자질과 적성, 인성 등을 중시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에 따른 다중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등 면접전형을 강화했다.

각 대학별 의대 모집요강을 보면, 가천

대는 수시모집 가천의예전형(학생부종합)에서 20명, 학생부우수자(학생부교과) 5명 등 25명을 선발한다. 가천의예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정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를 반영해 선발한다. 두 전형 모두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2과목) 영역 중 3개 영역 각 1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경희대의대는 학종 네오르네상스전형 55명, 논술우수자전형 22명 등 77명을 수시로 뽑는다. 학종은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논술전형은 학생부 30%, 논술 70%로 선발

하고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 한국사 5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의학계 논술에서는 특정 과학 지식 뿐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능력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고려대 의대는 학종 일반전형 35명,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 16명, 학종 고교추천II전형 32명, 특기자전형 10명 등 93명을 선발한다. 학종 일반전형은 1단계 서류로만 5배수 내외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산하고, 수능최저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와 한국사 4등급 이내를 적용한다. 학생부교과 학교추천I전형은 1단계서 학생부교과 100%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 100%를 적용해 뽑는다. 수능최저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특기자전형에서는 1단계 서류 100%로 선발한 뒤, 2단계 면접 50%를 추가해 뽑고,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국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종 DKU인재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 수시 학종은 서류 100%를 적용하는데,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를 적용한다.

서울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가장 많

은 105명을 선발한다. 학종 일반전형 75명, 지역균형선발전형 30명으로 일반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평가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를 적용한다.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고교별 2명 이내를 추천받아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종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는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 등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성균관대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종 글로벌인재전형 25명을 뽑는다. 1단계 서류평가로 3배수 내외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20%를 추가해 전형하고 수능최저는 없다.

중앙대 의대는 논술전형 40명, 학종 다빈치형인재 8명, 탐구형인재 8명 등 총 56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논술 60%, 학생부 40%(교과 20%, 출결 및 봉사 20%)를 적용하고 수능 국어, 수학기형, 영어, 과탐(2과목) 중 4개 영역 등급합 5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최저를 반영한다. 학종은 1단계 서류평가로 3~4배수 내외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합산해 수능최저 없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설립자비리 ‘서남대·서남학원’ 청산 본격화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문제는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 문제 여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

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곧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기업 40% “경력직 채용 ‘평판조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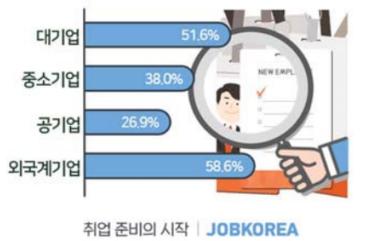
이전 직장 직속상사에 문의 ‘43.0%’  
업무능력·대인관계·적응력 등 검증

기업 10곳 중 4곳은 경력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약 절반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로 입사를 보류시킨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378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평판조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9.9%가 평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기업은 기업별로 외국계기업(58.6%)이 가장 많았고, 대기

기업 39.9% 평판조회 한다  
\*기업인사담당자 378명 대상 조사. 자료:잡코리아



취업 준비의 시작 | JOBKOREA

기업(51.6%), 중소기업(38.0%), 공공기관·공기업(26.9%) 순이었다.

평판조회를 하는 방법은(복수응답) 이전 직장의 직속상사(타입)에게 문의(43.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이전 직장

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37.7%), 개인 SNS 방문(27.2%), 이전 직장의 동료에게 문의(21.2%) 등의 방법으로 평판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복수응답) 업무능력 검증이 응답률 58.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 및 조직 적응력 검증(43.7%),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성과) 사실 확인(34.4%), 인성·성격 등 신뢰감 확인(31.1%), 전 직장 퇴사사유(25.8%) 등도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사담당자의 약 절반(45.7%)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

#### 대한수영연맹 회장 선출

국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지용(사진) 이사장이 제27대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선출됐다. 국민대는 김 이사장이 지난 19일 오후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에서 장세철 고려건설 회장, 이용기 건국대 명예교수를 제치고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장남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회장,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수영연맹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수영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인천대

####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험생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인천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난해

대비 약 3억원 이상 증가한 총 7억9300여 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인천대는 대입전형 간소화,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 전형운영의 공정성과 다양한 중·고교 연계활동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과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교사 대상 고교 맞춤형 컨설팅, 중학교 대상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 지진이 발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돼 치러진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이 메트로신문 수능 특별판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지진 등 천재지변엔 ‘대입전형’ 변경 가능

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시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대입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입 전형 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학생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8월부터 대입 전형 내용을 미리 확인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사유에 ‘천재지변이 나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해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 기간 이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내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 내용 확인 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날인 16일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미뤘고, 이후 수능 성적통지 등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됐다.

/한용수 기자